

## 2018년도 제10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0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18. 10. 4(목) 14:00
- 회의장소 : 아창제 사무국 회의실

2018년도 제10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34작품으로, 초연부문 23작품, 재연부문 11작품이다. 예년보다 월등히 많은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작곡가들의 신선한 도전이 매우 고무적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블라인드심사),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에 대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작품들을 일별할 때, 관현악 연주의 기량과 이를 구사하는 작곡기술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통적인 어법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다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컴퓨터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손과 마음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전개와 편리한 처리를 많이 사용하여 작품을 쉽게 만들어내는 경향은 경계할 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관현악곡의 경우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기획연주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변화있게 선정하여 청중들이 오늘날의 국악관현악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에 힘썼다. 심사위원들은 한정된 선정 작품수로 인하여, 선정되지 않음에도 선정된 작품에도 버금가는 수준의 작품들이 있음에 아쉬워 하였다.

제10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심의위원 일동